

SW중심대학 SW전공캠프 참여 소감문

학부	전산전자공학부	전공	1전공	전산심화
			2전공	
학번	21800637	성명	장주영	

참여부문	참여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SW 전공캠프	웹서비스 프로젝트(Spring)	22.01.03 ~ 22.01.28

<p>Front End</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Javascrip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Bootstrap</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jQuery</p> </div>	<p>Back End</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Spring Boo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MyBatis</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Language</p>  <p>Java</p> </div>	<p>Storage</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Amazon S3</p> </div> <p>DB</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MySQL™</p> </div>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TeamPick</p>	<p>Tool</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Figma</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Github</p> </div> <p>Deploy</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Amazon EC2</p> </div>
--	--	---	---

1. 참여 프로그램 내용 설명

위 캠프는 전자정부 개발 툴의 일종인 Spring을 활용하여 직접 Web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캠프입니다. 실전 프로젝트 1에서 기본적인 웹 서비스에 관한 개념을 익히고 조금 시도해 보았다면 이 프로젝트는 해당 과목의 연장선입니다. 강의의 큰 틀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웹 서비스 개발 경험이 많은 팀장급의 학생들과 캠프를 신청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모여 여러 개의 팀으로 흩어집니다. 첫 주차 미팅 때 팀장급 학생들이 본인들이 개발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자유 선택에 의해 팀을 선택합니다. 제가 특히 좋았던 점은 서로 개발 능력에 관계없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자유롭게 지원함으로써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미팅은 매주 1회씩 총 5회 이뤄지며 마지막 주는 수료식 겸 발표식으로 1회 더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공통 미팅 때는 본인 팀의 개발사항 업데이트와 어려운 점을 다른 팀들 앞에서 브리핑하게 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 다음 미팅까지 개선해 나가며 마지막 주를 향해 달립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교수님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고는 최대한 적게 개입하시며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여 주중에도 피드백을 원한다면 그때 성심성의껏 도와주십니다. 그 외의 시간은 팀별로 조율하여 서로 맡은 분야를 공부하고 개발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저희 팀의 경우는 주 3회 따로 줌 미팅하며 서로의 파트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미팅 시간이 귀하다고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서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의 시간이라 서로 부담 없이 질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더불어 발전하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고 배움의 질이 높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의 특징은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만약 다른 팀원이 시간이 부족하여 개발이 늦춰지게 된다면 같이 도와주며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끝없는 자기 계발의 시간이었습니다. 5회의 정기 미팅 외에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시간은 바로 튜터링 세션입니다. 교수님의 지도하에 팀장급 학생들이 웹 개발에 있어서 필수 요소들인 기본 테크닉을 알려주는 TA session이 진행됩니다. 기억에 남는 TA session으로는 로그인 관리를 위해 session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TA session, 그리고 협업에 있어서 필수 능력이었던 Github 사용법을 알려줬던 Ta session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을 만큼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 참여 전 준비한 내용

전공 새내기로서 많은 프로젝트를 참여해보지 못해서 언어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라 이번 캠프를 통해 Jav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숙련도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먼저 자바라는 언어를 익히고 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1-1학기 여름방학에 “Java 프로그래밍 기초” 전공캠프를 참여하여 낮에는 양질의 문제를 풀고 밤에는 따로 <Java의 정석>이라는 책을 사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한 후 “자바프로그래밍언어” 수업을 수강하여 교수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추가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실전 프로젝트 1”의 수강이었습니다. 웹 개발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던 저에게 이 수업은 정말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습니다. Mybatis ,Spring, MySql과 같은 현업에서도 주로 쓰이는 back-end 툴과 기술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고. 그 외에도 기초적인 html, php, css, JS를 비롯한 front-end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익힐 수 있어 양쪽 모두를 경험해보고 개발해 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캠프를 진행하면서 수업에서 사용한 ppt와 과제들은 틈틈이 참고하며 추후 캠프를 참여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만약 사전에 실전 프로젝트 1을 수강하지 않고 캠프를 수강했다면 Spring을 활용한 Web 개발에 대해 제가 원하는 만큼 습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해하지 않고 천천히 제가 가진 것을 활용하며 배워가니 소중한 성공 경험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3.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

저는 항상 슬로 스타터였습니다. 남들이 이미 저만큼 가 있을 때 그들이 남겨 놓은 표식을 보며 천천히 따라가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틈도 없이 앞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바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교수님과의 면담을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상에 선 사람들”에 대한 비유는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묵묵히 정상에 선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던 저는 이 캠프를 통해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개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2가지 덕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개발성 입니다. 정신없이 바뀌는 IT 업계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선 끊임 없는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신 기술과 툴을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면 그 개발자는 Something Special 한 개발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되돌아 보고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지 고민하는 것은 개발자가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며 우리는 그것을 자기개발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협업 능력입니다. 물론 혼자 하는 업무가 많을 때도 있지만 개발자는 그 어떤 직업보다 끊임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혼자서는 10시간 걸릴 일이 협업해서 1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업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서비스 프로젝트(Spring)”는 위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기를 수 있게 해준 아주 소중한 캠프였습니다. 매주 최소 4~5번의 미팅을 가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피드백 해주며 공부했고 미팅 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로의 일을 도와 해결해 나갔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때도 많았지만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정말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미팅을 통해 업무를 배분하고 난 후에는 자기개발성을 기를 시간 입니다. 평소에 몰랐던 것은 따로 찾아 공부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실패했던 부분은 두고두고 리뷰하며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하나의 코드에 매달리다 꿈에서까지 코딩하다 일어날 정도로 다른 팀원에게 누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아마 혼자 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적당히 하다가 포기했겠지만, 같이 하니 더 노력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개발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게 해준 웹서비스 프로젝트(Spring)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추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위한 한마디

“Just Do It”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나이키의 슬로건이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도 이 캠프를 참여하기 전에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난 프로젝트 경험도 없고 잘하는게 없는데 캠프에 잘 참여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선배가 무심코 던진 “일단 해봐 네가 잃을 게 없잖아.”라는 말은 제 생각을 바꿔 놓았고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잃을 게 없습니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 모두 비슷한 처지이며 다들 배우기 위해 뜻을 갖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수업에서 성적을 두고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닌 서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때의 프로젝트를 혼자 열어보며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되웁니다. 그때의 따듯한 경험과 서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을 새우며 보냈던 뜨거웠던 겨울을 추억합니다. 이처럼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저는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다들 정상에서 만납시다!

